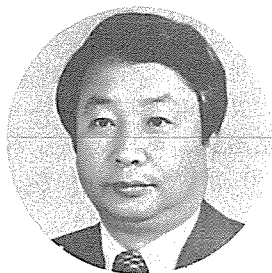


# 言論의

## 科學과 技術

### 報道的의 문제점



유 재 천  
(西江大교수·新聞放送學)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들이 여러 종류 발행되기 시작했다. 대상독자층과 편집방향에 따라 과학잡지들의 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극도의 전문화된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대중이나 학생층을 독자로 삼는 과학잡지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잡지가 이 나라의 과학발전이 이룩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평가 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잡지를 수용할 만큼 성숙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뜻이 크다 고 하겠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거의 불모의 상황에 있었다. 기껏해야 일간신문의 어느 한 구석에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과학난이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과학관계나 기술 혹은 의약관계 뉴스가 실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모든 신문의 경우가 아니라 그래도 과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신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금도 이러한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과학과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언론에서 과학이나 기술이 푸대접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좁은 신문지면 때문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독자들이 과학이나 기술관계 기사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한 설명에도 타당성이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언론의 이해가 아닐가 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만 올바르다면 연재소설을 하나 없애더라도 지면을 더 할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그나마 신문의 과학면을 맡아 거의 혼자서 부장의 구실도하고 평기자로써 기사를 도맡아 쓰면서 고집스럽게 외로운 등

대지기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신문의 과학저널리즘이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과학저널리즘의 명맥은 유지되어 오긴 하였으나 과학 저널리즘의 질적인 수준의 문제가 항상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학저널리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면의 전문기자가 양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는 과학과 기술보도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 언론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등이 독자들의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 언론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보도를 다루어 왔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의약품개발이라던가 불치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의 등장 혹은 우리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기술의 고안품이 나왔다는 등의 뉴스를 주로 다루어 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요성과 흥미라는 두가지 뉴스가치를 존중해야만 하는 언론의 관행에 견주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와같은 언론의 관행 자체가 아니라 관행의 근저에 깔려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식의 차원인 것이다.

조금 지나친 의견일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인상은 우리 언론이 여전히 과학과 기술에 대해 이 시대와 걸맞지 않는 인식을 밑바탕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러한 예로서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자를 보도하는 태도와 기술고시 합격자를 다루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경우 합격자 명단을 전부 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점을 받은 합격자나 최년소 혹은 최년장 합격자들 개인의 배경소개를 곁들여 보도해 왔다. 그러나 기술고시 합격자의 경우는 합격자 명단조차 소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동급의 국가고시에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강조해서 다루고 기술고시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인 그릇된 직업에 대한 서열의식, 말하자면 士農工商의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오늘의 세계가 과학의 시대이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야 하고, 첨단기술을 내세우며 훌륭한 기능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실제 보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과 맞지않는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사는 전문기자의 부재로 인해 독자를 그릇 인도하거나 기사 자체를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경우 과학이나 기술관계 기사는 되도록 전문용어를 피하고 그것을 일반용어로 바꾸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혹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될 경우라면 그 용어의 뜻을 해설로 풀어 독자의 이해를 돕게 만드는 친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신문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의 통신이나 잡지를 번역해서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전문기자가 아닌 경우 내용이 더욱 생소하게 되기 쉬운 상황이다. 과학이나 기술의 각 전문분야 마다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자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문이나 과학잡지의 기사들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틀린 개념을 버젓이 쓰고도 틀린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생물학 입문서 한권 읽지 않은 기자가 어떻게 유전공학에 관한 기사를 제대로 취재하거나 번역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의 현주소는 누구에게나 명백해 진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의학관계 기사에서 보이는 선정주의적 경향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날 갑자기 사회면이나 과학면의 머릿기사 가운데서 큰 활자로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의약품이 발명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대하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과대학 무슨 교수팀이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 방법을 발견하였으며, 임상실험 결과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사를 찬찬히 읽어 보면 아직 사례연구나 초기 실험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완벽한 임상실험을 거쳐 학계의 공인까지 받은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기사화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같은 기사는 취재기자 자신이 과학의 일반 관행을 모르는데서 초래되었거나 혹은 선정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또는 공을 다투는 과학자의 경솔한 명성획득욕구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가 암환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항상 감안해야만 하는 것이 기자의 도리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획기적인 의약품이나 치료방법이 생겼다고 할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 기사내용이 사실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줄 실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문의 윤리는 이런 점에서도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속에서 우리나라 신문의 과학기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이나 식품영양관계 기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건강상담이나 고른 영양섭취를 고취하는 기사들은 모두 신문이 독자에게 베푸는 서비스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선의의 서비스가 기사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독자들의 식생활을 그릇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강상담에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약을 어떻게 쓰라는 처방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식품이 정력에 좋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편향된 식생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기사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어느 영양학자가 계란을 하루에 한개 이상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번역해 실리는 일 같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처럼 여러 음식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식생활을 하는 나라의 경우와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계란을 하루에 한개 이상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 실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 영양학자의 의견을 묻는 성실성이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보도기사가 가끔 대기업의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기업들은 앞 다투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에서 몇번째로 최첨단기술제품을 개발, 양산체제를 갖추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식의 홍보를 한다.

이러한 홍보물을 과학과 기술보도로서 다루는 경우, 그것이 정말 그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성과인지 아니면 노하우를 사들여다 만든 것인지 정도는 취재해서 진실을 밝혀 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 자체가 후진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과학저널리즘이 만개하기를 기대하거나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학저널리즘이 본궤도에 오름으로써 이 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보도가 공평하고도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낯은폐습 청산하고

미풍양속 계승하자.